

‘푸른 눈의 돼지 신부’가 이룬 제주의 꿈

글 정재학 작가 / 사진 민영주 조단스튜디오



‘푸른 눈의 돼지 신부’로 불린 맥그린치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초대 이사장 사진 앞에 협회 책임자들이 모였다. 오른쪽부터 리처드 트라우튼 이시돌목장장, 마이클 리어던 조셉 이사장, 최호순 이시돌요양원 사회복지과장, 오정아 어린이집 원장, 오윤택 숨비소리 시설장, 임건택 기획실장.

※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 1954년 맥그린치 신부 제주도 부임. 1959년 한림수직사 설립, 수직물 강습소 개설. 1961년 성 이시돌목장 개설, 목축업 실습장 운영. 1962년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 설립. 1963년 개척농가 조성사업. 1964년 이시돌사료공장 가동. 1970년 이시돌의원 개원. 1973년 양돈협업농가 조성. 1981년 요양원 개원. 1985년 어린이집 개원. 1986년 치즈공장 설립. 1994년 이시돌 사회교육원수원 개원. 2002년 이시돌의원을 이시돌복지지원으로 재개원. 2004년 이시돌요양원 신축. 2010년 조셉 신부, 제2대 이사장 취임.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설립자인 맥그린치(가운데) 신부는 성(姓)인 맥그린치와 이름인 패트릭 제임스의 머리글자(M·P·J)를 따서 '임피제'라는 한국이름을 지었다. 오른쪽은 현재 이사장인 조셉 신부로 2년간 수의사로 봉사하러 이시돌목장에 왔다가 맥그린치 신부에게 감화되어 27세에 신학교에 입학, 사제가 됐다.

“전쟁 중인 한국으로 향하면서 동료들과 얘기했어요. 3개월도 안 돼 죽을 수 있다고…”

아일랜드 성골롬반의방선교회 소속의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Patrick James McGlinchey, 1928~2018) 신부가 한국에 도착한 것은 한국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53년 4월, 그의 나이 스물다섯 되던 해였다. 1년 후인 1954년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도 한림본당에 부임하면서 처음으로 제주 땅을 밟았다. 1948년 4.3사건과 한국전쟁을 거친 제주는 너무 가난하고 황량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20대 중반의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에 도착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는 성경 대신 삼을 들었다. 그리고 매일 기도했다. 이 사람들을 잘 살게 해달라고.

암돼지 한 마리로 시작한 이시돌목장

맥그린치 신부는 어느 날 육지에 불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새끼를 밴 요크셔 암돼지를 한 마리 사서 끌고 왔다. 난데없는 암돼지의 등장에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희망이었다. 그 암돼지가 낳은 새끼 열 마리로 가족은행을 만들어 어려운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가난한 농가들이 돼지를 키울 수 있도록 미국의 농업 원조물인 사료용 옥수수를 들여와 나눠주었고, 사료 공급을 위해 배합사료 공장을 만들어 직접 사료를 생산했다. 사람들은 그를 ‘푸른 눈의 돼지 신부’라고 불렀다.

빛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돼지가 다 자라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몇 푼의 돈을 위해 혈값에 돼지와 사료를 팔아버리곤 했다. 결

국 나눠준 돼지를 다시 거둬들여 직접 양돈업을 시작한 것이 성 이시돌목장이 만들어진 계기다. 성 이시돌(St. Isidore)은 12세기 스페인의 농부로 평생 땅을 사랑하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오늘날 농부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 받는 인물이다. 이시돌 성인의 돌봄 덕분이었는지 목장은 번성했다.

이시돌목장은 한때 돼지 1만5천 마리를 키울 정도로 성장했지만 1980년대 들면서 돼지와 필요한 시설들을 직원과 주민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양돈업은 제주의 중요한 산업이 됐고 면양과 젓소, 말 등을 사육하면서 제주도 근대 목축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제주에는 제대로 된 금융기관이 없어서 주민들은 높은 이자를 내는 사채에 허덕였다. 갯돈을 떼여 자살하는 주민도 생기자 맥그린치 신부는 1962년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제주의 첫 번째 신탁이자 전국을 통틀어 네 번째로 설립된 한림신용협동조합은 제주지역 농민들이 고리대금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어느 날 맥그린치 신부는 이유도 없이 죽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제주를 떠나 목포의 방직공장에 취직한 소녀의 이야기였다. 고향에서는 마땅히 할 일이 없어 타지에 나가서 고생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주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를 고민하다가 방직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해외 원조단체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고 아일랜드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1~2달러씩 후원받아 면양 35마리를 구입한 뒤 양모 제품을 생산하는 한림수직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고향의 어머니는 아일랜드에서 물레를 보내주었다.

방직기술을 가진 아일랜드 수녀 2명을 초대해 기술을 가르쳤고, 신부들은 양털을 뽑았다. 주민들의 노력과 맥그린치 신부의 경영 능력이 결합돼 한림수직은 빠르게 성장했다. 직원이 100여 명에 달했고, 집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여성도 1,500명에 육박했다. 아침에 밭에 나가 일하고 낮에 물질을 하고 돌아온 여성들은 일감을 받아 밤에 집에서 옷을 짜면서 조금씩 가난에서 벗어났다. 한림수직은 중국의 값싼 양모 제품이 들어오면서 2004년 공장 문을 닫기 전까지 40여 년 동안 제주 여성들을 위한 소중한 일자리를 창출했다.

맥그린치 신부는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불구의 몸이 되는 주민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웠다. 1950년대 제주도는 의료에서도 철저히 소외된 지역이었다. 1957년 설립된 제주도립병원이



이시돌목장 앞에서 포즈를 취한 협회 책임자들. 이시돌목장은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제주도의 유일한 종합병원이었고, 당시 제주의 의사 숫자는 40여 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들 대부분은 피난길에 잠시 몸을 의탁한 사람들이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육지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30년간 연평균 2만여 명 진료한 무료병원

맥그린치 신부는 목포에서 골롬반병원을 운영하던 골롬반수녀회의 도움으로 1970년 4월 제주시 한림읍에 이시돌의원을 개원했다.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가 운영비를 대고 골롬반수녀회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개원과 동시에 제주도 전역에서 환자들이 밀려왔다. 선진국에서 들여온 신약의 효과가 뛰어났고, 돈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무료로 진료를 해준다는 소문이 나면서 병원은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멀리서 찾아온 환자들은 병원 주변 여인숙에 숙소를 잡고 접수 번호표를 받은 후 며칠씩 기다려서 진료를 받을 정도였다.

초대 원장인 베넥누스 수녀는 밤낮없이 환자들을 돌보느라 고생하다가 3년 만에 건강이 악화되어 아일랜드로 돌아갔고, 2대 원장이던 파멜라 수녀도 2년 만에 건강이 나빠져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시돌의원은 잠시 주춤하기도 했다.

1994년 정부가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면서 이시돌의원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했다. 의료보험과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인정하는 약품만 써야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보내오는 무료 의약품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병원 경영도 어려워졌다. 병원은 힘들어졌지만 제주도민을 위해서는 잘된 일이었다. 사회복지 안전망이 어느 정도 구축되고 다양한 의료시설이 들어서면서 의료에 대한 갈증이 일정 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1970년부터 2002년까지 30여 년간 연평균 2만여 명의 취약계층 주민들을 무료 진료하면서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이시돌의원은 2002년 호스피스병원인 이시돌복지의원으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임피제(맥그린치 신부의 한국이름) 신부님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죽음을 선고받은 말기암 환자라고 하셨어요. 말기암 환자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 다 불쌍하다고 생각하셨죠.”

이시돌복지의원 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숙 이자벨(67) 수녀의 말이다.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가 최근 새롭게 시작한 사회복지사업은 ‘숨비소리’라는 청소년 보호시설이다. 소외된 아이들에게 필요한 일을 찾아보고자 시작한 일이다. 죄를 지은 아이들은 소년원에 보내지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다. 보호관찰의 경우 특별한 대책 없이 석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범률이 높은 편이다.

숨비소리를 맡아 운영하는 살레시오수도회의 오윤택 가브리엘(54) 신부는 “본래 있는 곳과, 만나던 친구들에게 돌아가면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며 “아이들의 환경을 바꿔주면 다시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발걸음

재단법인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의 업무는 크게 영리사업과 사회복지사업으로 나뉘어 있다. 영리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 호스피스병원과 어린이집, 젊음의 집 등 사회복지사업에 돈을 쓰는 구조다. 현재 재단에 돈을 벌어주는 사업은 사료공장과 목장 두 가지다. 사료공장은 재단 사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점점 매출 규모가 줄고 있다.

“공장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투자비가 너무 커 업무를 내지 못했죠. 그 때문에 예전처럼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료공장장을 맡고 있는 고완수(60) 협회 상임이사는 “1964년에 공장을 짓고 1990년 자동화를 시켰지만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됐다”며 안타까워했다.

2003년에는 150만 평 규모의 경주마 목장을 만들어 말 육성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이시돌목장은 제주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의 경주마 생산지 중 하나로 망아지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훈련까지 맡고 있습니다.



임피제 신부는 한라산 중산간 지역의 황무지를 개간해 이시돌목장을 일구었고, 제주 여성들을 위해 한림수직사를 설립해 일자리를 만들었다(위부터).

150마리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60% 정도가 위탁으로 관리하는 말이지.”

북아일랜드 출신으로 이시돌목장에서만 18년째 일하고 있는 리처드 트라우튼(47·Richard Troughton) 목장장의 말이다. 현재 이시돌목장에는 네 마리의 경주마 종마(種馬)가 있는데 자마(子馬)들이 각종 경주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내고 있다.

이시돌목장에서 유기농으로 생산하는 우유는 양으로는 단일 목장 최대 규모이며, 품질도 최고 수준이어서 자부심이 높다. 지

금까지는 우유 원유만 생산하고 제조나 유통은 다른 회사에 맡겨왔지만 앞으로는 유가공 설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원유를 가공해서 치즈나 요거트를 직접 생산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재단법인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는 그동안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해왔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국가가 하나씩 그 책임을 맡으면서 협회의 정체성도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맥그린치 신부에 이어 2010년 12월부터 제2대 이사장을 맡은 마이클 리어던 조셉(64·Michael Riordan Joseph) 신부의 고민이 더욱 커졌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절망한 이웃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한, 또는 지금 진행하는 여러 사업이 협회의 존재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추구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앞에 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자고 손을 내밀겠습니다.”

임건택(45) 기획실장은 “과거에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지금은 공동체의 유지와 생태, 환경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시대 상황을 보며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는 국가가 못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의 일을 했던 것이고, 지금은 그 필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기 때문에 시대 상황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숨비소리를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임 기획실장은 “재단이 보유한 땅에 건물을 짓고 임대료를 받으면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방향은 아니다. 규모보다 시대의 징표가 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며 “생태목장 같은, 생명과 교류할 수 있는 점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민을 위해 한평생을 살았던 맥그린치 신부는 2018년 4월, 향년 90세로 선종했다. 1973년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받으며 ‘임피제’라는 한국 이름을 얻었고, 선종 후 명예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지만 아일랜드보다 훨씬 긴 세월을 한국에서 살았고, 제주 땅에 묻혔다. 이시돌목장이 내려다보이는 작은 언덕에 평화롭게 잠든 임피제 신부는 제주도민을 잘 살게 해달라고 했던 그의 기도가 이룬 기적을 흐뭇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